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칭의(稱義)의 결과**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재(누리스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디카이오텐테스, 과거분사)이라는 원어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점진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고 단회적임을 보인다. ‘누리자’라는 말(에코멘)은 전통사본들의 다수에는 ‘누리느니라’(에코멘)고 되어 있다.

칭의의 결과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불화(不和)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성경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큰 특권이며 복이다. 그것은 에녹과 노아와 욥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창 5:21-24; 6:9; 욥 29:4).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는 칭의를 받은 은혜를 가리킨다고 본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칭의를 받은 은혜 안에 서 있다. 모든 성도는 이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하며, 결코 이 은혜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칭의 받은 은혜가 곧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그를 통하여 죄셋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칭의의 결과 중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즐거움은 장차 올 영광스

런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과 견고한 소망에서 나온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롬 3:23),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곧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부활과 천국의 영광은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인 것이다.

[3-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鍊綴)(도키메)[연단된 인격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평안할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환난이 성도의 신앙 인격을 단련하여 몸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의 소망을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의 소망은 헛되지 않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헛된 꿈이나 망상이 아니다. 성도의 소망이 확실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여된 것과 같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이시며 확증이다.

[6-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善人)(투 아가투)[그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확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불경건과 죄 가운데서 연약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여된 것이며 그 사랑을 체험한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 선인’은 앞에 말한 ‘의인’을 가리킨다고 본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증이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일서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9-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확실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 성도가 장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이며 고난 중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므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오고 그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성도는 천국을 확신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한다. 칭의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미래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며 산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에 대해 증거한다. 첫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성경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둘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며 환난 중에 낙심치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셋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여된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로부터의 구원도 확신하게 되었다.

주일오후설교 |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예언함

[창 49:1-2]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열두 아들들에게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하였다.

[3-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威光)[위엄이 초등(超等)하고 뛰어 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파카즈 캄마임[물같이 불안정하니] 혹은 ‘물같이 자유분방하니’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을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르우벤이 이런 예언을 들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야곱은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고 반복해 말한다. 그것은 르우벤이 작은 어머니 라헬의 여종 곧 그의 서모 빌하를 범한 일을 말한 것이다(창 35:22). 르우벤은 장자로서 뛰어난 점들이 많았지만 큰 죄를 범함으로 그 장점들을 잃어버렸다(대상 5:1).

[5-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할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염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성을 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였었다(창 34:25-26). 야곱은 그 일을 좋지 않게 보았고 불쾌히 여겼고 매우 염려하였었다(창 34:30). 경건한 성

도는 악한 일을 행치 말아야 하고 또 악한 일에 참여치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했다(엡 5:11). 야곱은 그러한 혹독한 노역과 맹렬한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며 흠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민 26:14)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얻었고(수 19:1-9),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에 다 흠어져 거주하게 되었다(수 20-21장).

[8-9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행성나게 할 수 있으랴.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며 원수들의 목을 잡는 통치권을 발휘할 것이며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묘사된다. 그것은 왕권을 상징할 것이다. 그는 먹이를 움키고 찢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를 성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10절]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흠’이나 ‘치리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나타낸다. ‘실로’라는 말(של로 שֵׁלֹו)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다. (1)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그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본다(탈굽역, 제롬, 칼빈). 히브리어 쉘(שֵׁל)은 ‘태아’라는 뜻이다. (2)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그것(치리자의 흠)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본다(헬라이어 70인역, 수리아어역, BDB, NIV). 그들은 이 말을 쉘(שֵׁל)(관계대명사)와 로(לוּ)(‘그에게 속하는’)의 결합어로 본다. (3)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메시아에 대한 명칭으로 본다(탈무드, KJV, NASB). 히브리어 살라(שָׁלַח)는 ‘조용하다, 편안하다’는 뜻이며, 쉘로라는 말은 ‘안식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4) 다른 이들은 이 말을 실로라는 장소로 본다(NASB 난외주, 멜리취). 이와 같이, 이 말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그 뜻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데는 대체로 일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다. 또 본문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한다. 메시아는 모든 백성의 주(主)가 되실 것이다.

[11-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이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이다.

본문은 유다 지파가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됨을 나타낸다.

[13-15절] 스블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이다.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왔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쉼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이다.

스블론은 해변에 거할 것이며 잇사갈은 토지를 경작하는 수고로운 일에 종사하며 그것을 즐기며 생활할 것이다.

[16-18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이다. 단은 길의 뱀이요 침경의 독사리이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기다렸나이다)(KM).

단은 백성을 재판할 사사를 배출할 것이라고 예언된다. 이 예언은 사사 삼손에게서 이루어졌다. 또 단은 길의 뱀과 사나운 독사로 묘사된다. 이것은 단 지파 사람들의 사나움을 가리킨 것 같다. 야곱은 악하고 사나운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아 선함과 평안 안에 살기를 소망한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소원이며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9-21절] 갓은 군대의 박격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계하리이다. 납달리는 농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갓은 용맹한 자들로 묘사된다. 후에 갓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대상 12:8-15). 아셀은 기름진 식물을 내어 왕의 식탁 재료들을 공급할 것이다. 납달리 사람들은 사사 드보라 때에 바락을 따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다(삿 4:10).

[22-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를 쓰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맛삼 מִשָּׁם)[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은 형들의 핍박을 받아 이웃의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강건해졌다.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는 말씀은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뜻 같다. 메시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25-26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이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어졌부

친과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요셉이 요셉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요셉도 도우실 것이며 진능하신 그는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은 영육의 풍성한 복일 것이다. 그 조상들의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다.

‘물어뜯는 이리’라는 표현은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손들과도 전쟁을 치룬 적이 있었다(삿 20장). 베냐민 지파에는 용맹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대하 14:8; 17:17).

[28-33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부친과 조상들과 . . .

사람은 죽은 후 ‘그 열조에게로’ 즉 천국 혹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르우벤은 장자로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서모와 통간하는 큰 죄를 범함으로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사람은 범죄하면 타고난 좋은 재능을 다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죄 짓는 일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죄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잃게 한다.

둘째로, 유다는 큰 잘못을 범했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회개했다고 보인다. 그는 동생 요셉을 증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자이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두 아들을 잃었고 아내도 잃었다. 또 창녀에게 들어간다는 것이 그의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수치스런 일도 저질렀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을 회개한 것 같다.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베냐민 대신 자신을 증으로 삼게 해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의 지손에게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비록 큰 죄를 지은 자라도,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셋째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증으로 팔려 갔고 긴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 그는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피하였다.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은 큰복을 받았고 마침내 온 가족들을 구원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복된 길이다.

수요일 설교 | 앗수르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멸망

[사 14:24-3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 . .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앗수르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리”고 말씀 하셨고, 선지자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세상의 만물과 만사를 그의 뜻 가운데 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편 115:3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디”라고 말했고, 시편 135:6은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라고 말했다. 또 다니엘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라고 증거하였다(단 4:35). 우리는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둘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목표는 교회이다. 앗수르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멸망은 시온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피난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세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가 그들을 위해 대속 사역을 이루게 하신 자들, 즉 교회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救贖)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 중생(重生)시켜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우리를 의(義)로 훈련시키신다. 성경은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지상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며, 그것은 훈련과 징계를 통해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 8:28). 그 ‘선’은 무엇보다 우리의 성화를 가리킨다.